

전일빌딩 245  
9시30분 ~ 10시30분



광주관광재단은 광주만의 특화 예술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예술여행 상품개발 팸투어'를 기획·진행중이다. 사진은 전일빌딩 245 2층 남도관광센터 모습.

ACC  
10시40분 ~ 11시20분

# 광주 예술여행 1일 완전 정복

## 광주관광재단 '예술여행 상품개발 팸투어' 전일빌딩 245 출발, 광주공연마루 마무리

“거리에서 만나는 광주 예술여행” 다양한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숨은관광지’에 선정된 전일빌딩 245, 광주의 근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양림역사문화마을 등...

다른 지역에서 친구나 지인이 광주를 방문한다면 어디를 소개해야 할지, 주말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 둘러볼 도시 속 핫플레이스는 어디인지 고민이라면 광주관광재단의 투어 프로그램을 추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 남성숙)이 진행하고 있는 ‘예술여행 상품개발 팸투어(이하 팸투어)’에 참여했다. 팸투어는 재단이 ‘2021 비엔날레 여행의 해’를 맞아 예술자원을 활용한 광주만의 특화 예술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19가 종식된 후 다시 시작하는 여행의 첫 번째 관광지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팸투어는 전일빌딩 245에서 시작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오월어머니집, 양림역사문화마을, 광주문화재단 등을 둘러본 후 광주공연마루에서 국악공연을 보며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출발지는 광주공연마루(광주시 서구 상무시민로 3) 건너편 주차장. 지난 20일 오전 8시40분 모여 버스를 타고 시작한 투어에는 ㈜아이티여행사 이해경 대표 등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광주관광안내소의 손미향, 정단비씨, 광주 대표 MC 락배와 가이드 정영희씨가 한복을 입고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첫 방문지는 전일빌딩 245 2층 남도관광센터. 이곳은 광주·전남 22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5편의 미디어아트 영상, 미디어 테이블과 디지털 방명록을 만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나만의 여행 코스를 짤 수 있는 미디어 테이블에서 자신만의 취향대로 가보고 싶은 장소를 골라 일정을 완성했다.

이어 5·18 기념공간으로 조성된 9·10층으로 이동해 문화해설사 신봉섭씨의 해설로 80년 5월에 관해 들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에서 차량시위를 주도하며 시위에 참여한 신 씨는 그날의 경험을 참여자들에게 들려주며 투어를 이끌었다. 참여자들은 옥상 전일마루에 올라서는 한눈에 보이는 무등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등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졌다.

투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어졌다. ACC 투어해설사 임영혜씨는 “지상 4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된 ACC는 5·18 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

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해 2015년 11월 개관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열리고 있어 문화예술 여행도시 광주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고 설명했다. 참여자들은 전당 곳곳을 둘러본 후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커미션을 관람했다.

전시 관람 후에는 투어 버스를 타고 양림역사문화마을로 향했다. 오전 11시30분 점심 때가 가까워진 시간, 참여자들은 오월어머니집에서 광주 7미(味) 중 하나인 주먹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양림동 투어를 시작했다. 오월어머니집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어머니들이 있는 곳으로 5·18 당시 어머니들은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뭉쳐 건넸다. 흰 쌀밥에 겨우 소금간만 한 주먹밥은 ‘생명’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주먹밥은 ‘나눔’과 ‘연대’를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고, 참여자들은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80년 5월 당시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한 양림동은 펙킨마을을 시작으로 공예특화거리, 양림골목비엔날레, 10년후 그라운드, 아이남스튜디오, 우일선 선교사 사택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중 10년 후 그라운드에서는 시원한 아이스티를 마시며 곳곳에 걸린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야기도 나누었다.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양림동 투어의 인기 코스는 아이남스튜디오였다. 고남기 실장이 스튜디오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후 아이남 작가의 대표작품들을 소개했다.

또 양림동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광주문화재단을 찾아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를 대표하는 홀로그램극장, VR 체험이 가능한 미디어 338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다양한 공간을 만나볼 수 있었다.

드디어 투어의 마지막 일정인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인 국악 상설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이다. 매주 화·토요일 오후 5시에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리는 국악상설공연은 광주시립창극단 등 국악단체들이 꾸미는 무대다. 이날은 국악그룹 도드리가 이날 국악관현악곡 ‘무등의 아침’, 국악가요 ‘낭만, 너영나영’ 등을 선보였고 참여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관광상품 개발자 팸투어에 참여한 플래티늄여행사 김기남 대표는 “타 시도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구상중에 있다”며 “광주가 이제는 전폭적인 5·18이 벌여졌던 역사적 장소를 돌아보는 ‘다크 투어리즘’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15시40분 ~ 16시10분

## 인터파크투어·21개 업체 협업 8개 관광코스 기획

광주관광재단은 지역 협력여행사 21개 업체와 협업을 통해 광주다움 관광 상품 8개를 기획하고 26일부터 본격 판매에 나섰다.

재단은 지역협력여행사 상품을 판매할 대행사인 인터파크투어를 선발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관광업계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광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의 미향, 예향, 의향 매력을 담은 관광코스를 개발했다.

상품은 ‘힐링 광주’, ‘광주문화탐방’, ‘문화체험 광주’ 등의 카테고리 나눠 판매 중이다. 이중 5월 9일까지 열리는 ‘제 13회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한 미션투어 상품은 비엔날레 입장권과 숙박권 등이 포함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공연마루  
17시~18시

## 기억, 행복, 꿈, 숨

www.현대미술가회, 29일부터 문예회관

‘당신의 삶에 휴식을!’

지난 2003년 첫발을 댄 www.현대미술가회(회장 백애경)는 여성작가들의 창작환경을 발전시키고 문화 참여를 확대해 현대미술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넓히기 위해 창립했다. 모임 이름은 ‘woman·wold·wave’의 약자로, 넓은 세상에서 여성작가들이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자는 다짐이 담겼다.

www.현대미술가회 회원전이 29일부터 5월 23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회원전은 지난해 진행된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전시 지원 공모에 선정돼 열리는 전시다.

전시 주제는 ‘숨’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대인들에게 일상을 돌아보며 휴식과 여유를 선사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여유’를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시선으로 풀어낸 전시에서는 기억, 행복, 꿈, 숨(휴식) 등 4가지 키워드로 제작된 서양화, 동양화, 판화, 공예,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참여작가는 김왕주·류현자·박경희·박수옥·백애경·이선화·이영민·임수영·정순아·정정임·정·조선아·조수경·채경남·한지희 등 모두 15명으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23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www.현대미술가회는 2003년 무등갤러리에서 열린 창립전을 시작으로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전남도립미술관 등에서 정기전과 초대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전시를 열지 못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백애경 작 '꽃 당신의 노래'

## ‘청년디지털문화일자리 사업’ 인력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2021지역주도형 청년디지털문화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단체(10개)에서 근무할 청년인력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 인력’에게 현장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예술단체’는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문화재단은 최근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단체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참여단체는 베이스튜디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예륜협동조합, (사)광주여성영화제, 파종모중, 유한회사 시온미디어, 프랙탈, (사)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 (사)일도시연주소,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랏이다.

지원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남성의 경우 병역필 혹은 면제자)이면 가능하다. 단,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야 하며, 근무기간 동안 광주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gjcf0416@naver.com)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10명을 선발하며 오는 5월 중순부터 최대 1년간 근무를 한다. 월 200만 원의 인건비 및 각종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문화재단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 확인 가능. 문의 062-670-749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양림역사 문화마을  
12시40분 ~ 15시20분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문모델 서경석